

	<b>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</b> <a href="http://www.gist.ac.kr">http://www.gist.ac.kr</a>	
	보도시기	<b>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</b>
배포일	2021.06.02.(수)	
보도자료 담당	홍보팀 조동선 팀장	062-715-2061
	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	062-715-2062
자료 문의	한국문화기술연구소 김안나 담당	062-715-4922

**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,**  
**‘물은 기억한다’ 부산현대미술관에 전시**  
 - 인공지능 시대 기술과 예술, 환경 문제를 융합한 스토리텔링 작품...  
 오는 9월까지 전시

-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전문구) 연구팀(책임자 김안나 연구원)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‘물은 기억한다 (Water Has Memory)’ 작품을 부산현대미술관 ‘지속 가능한 미술관: 미술과 환경’ 기획전에 전시한다.
- 본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관객을 미래 해양환경 문제의 해결사로 만들어주는 참여성 인터랙션 스토리텔링 작품을 개발하였다. 기획전에는 국내외 60여 명의 작가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해 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, 생태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.
- 부산현대미술관의 이번 생태환경전은 인간이 생태환경의 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이러한 변화의 해결에는 인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인류세(人類世)적 세계관 속에서 출발했다.
- 이를 위해 작품의 제작, 포장, 운송, 설치, 철거 등 전시 전반에 이르는

모든 활동은 친환경 실천 방안에 따라 진행된다. 또 전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고벽을 사용하지 않고 페인트와 시트지의 사용을 제한하며, 홍보 인쇄물에 이면지를 활용하는 ‘제로 웨이스트(Zero Waste)’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예정이다.

- 본 전시는 9월 22일까지 무료로 개최되며,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라 관람객은 하루 전까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다.

□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“이번 작품은 우리 연구소가 인공지능기술을 미디어아트에 적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이 인류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” 며, “앞으로 현생 인류가 처해 있는 환경 및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다양한 작품 활동에 매진할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

□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기술연구개발 정책지정 과제뿐만 아니라 과학문화 전시 서비스 강화지원사업, 융복합 예술창작지원 협력기획사업 등을 수행하였다. 최근에는 인공지능 실시간 미디어 파사드 매핑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공연, 전시 콘텐츠에 활용 및 국가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문화기술 연구·개발을 수행하고 있다.

<끝>

[사진 설명]



▲ 작품 ‘물은 기억한다 (Water Has Memory), 2021’ 전시